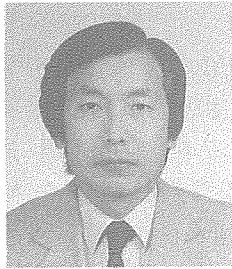


서울치대 제 21 대 학장에 김광남 교수



서울치대 신임 학장
김 광 남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은 지난 1일 3층 교수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1대 학장선거에서 김광남(보철과장 19기) 후보가 남일우(구강악안면외과 16기) 후보를 1표 차이로 힘겹게 물리치고 제 21대 학장으로 당선되었다.

2차 투표까지 가는 열띤 공방전으로 치루어진 이번 선거에서는 남일우(구강악안면외과 16기), 장익태(보철과 16기), 박태원(구강악안면방사선과 16기), 김수경(구강악안면외과 17기), 김광남(보철과 19기) 등 5명의 후보가 경합하여 총 62표 중 김광남 후보가 27표, 남일우 후보가 17표를 획득 1.2위를 차지하였으나 과반수를 넘지 못하여 1.2위만 가지고 2차투표로 승패를 가려야 했다.

2차 투표에서는 총 61명이 참가하여 김광남 후보가 31표를 남일우 후보가 30표를 획득하여 김광남 후보가 과반수를 간신히 넘기며 1표 차이로 힘겹게 승리하였다.

이날 김광남 신임학장은 그 동안 치대학장이 기수 중심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히고,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학교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행정능력 중심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선거는 바로 이와 같은 변화를 보여준 실례라고 밝혔다.

17일 오후 5시 서울치대 6층 강당에서 역대 학



서울치대 제 21대 이·취임식 장면

장을 비롯한 내빈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취임식에서 김광남 제 21대 학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제 한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학은 창의적 인재양성과 국제적인 연구업적을 창출해 내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히며, 대학종합발전 계획안과 교수요원증원, 연구여건개선 등을 이루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이종훈 전학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2년간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교수요원증원, 치의학도서관 분관, 교육연구재단 설립 및 4억 기본금 마련, 임상실습 조기노출 본과교과목의 일부 예과 이전등 2년간의 업적을 설명하였다.

한편 서울치대 교무담당학장보에 백기석(해부학교실)교수가, 학생담당학장보에 김중수(구강생리학교실)교수가 임명되었다.

김광남 신임학장의 주요약력은 다음과 같다.

- ▲65년 서울치대졸 ▲73년 의학박사 ▲76년~현재 서울치대 교수 ▲87년 학생담당학장보 ▲89년 교무담당학장보 ▲93년 치과병원 진료 및 기획담당 ▲93년 치과보철학회 회장·아세아두개하악장애학회장 ▲94년 보철과 과장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제 27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정기총회 장면

지난 4월 47일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회장 이상래)는 제27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서울치대 1층에서 6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감사보고가 있었으며, 95년도 예산 1천 4백여만원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전문의 및 치과용 방사선 관련 법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전문의제도와 관련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구강외과만 우선 실시하는 안이 부결되었으나 임시대의원 총회를 통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밝히며,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의 기본입장인 10개과 동시실시와 절충하는 문제 역시 이사회에 위임키로 했다.

또 지난 1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안이 입법 예고되어 파노라마등을 갖춘 1천여 치과의원의 방사선 취급자의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이 학회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이사회에서 세부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총회전에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일반연계 및 연구논문등의 발표가 있었다.

치과임플란트에 관한 SNU 토론회 개최

지난 4월 29~30 양일에 걸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부설 치의학연구소 주최로 치과임플란트에 관한 SNU 토론회가 개최되어 29일에는 전문가들의 토론회로 30일에는 일반 공개토론회를 가졌으며, 국제치과연구학회(IADR)가 후원했다.

대한치주과학회
鄭鍾平 교수 치주학회장에 선임



신임회장 정종평

대한치주과학회 제34차 정기총회가 지난 4월 22일 서울치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장에 정종평 교수(서울치대), 부회장에 권영혁 교수(경희치대)·서영수 씨를, 감사에 임학순·윤종

구 씨를 각각 선출했다.

총회에서는 6천7백79만여원의 지난 회기 결산액과 6천2백31만여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으며, 회칙 개정을 통해 섭외, 국제, 공보부를 각각 신설하고, 치주과 전문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치의제 시행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26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선임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총무 : 신형식, 재무 : 김경진, 학술 : 박준봉, 편집 : 한경운, 보험 : 이상엽, 섭외 : 유인철, 국제 : 정진형, 공보 : 채중규

齒協 복지부에 개정정관승인 요청

齒協은 지난 4월 22일에 열린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정관 승인을, 의료법 제27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14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

제44차 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 ②항 1호의 임후보 등록을 총회 개최 “10일 전”을 “15일 전”으로 ⑤항 “회장단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등의 정관 개정을 확정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종합학술대회 6월 9·10일 개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95년도 종합학술대회를 오는 6월 9·10일 이틀간 개최한다.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95년도 구강보건주간 행사의 일환인 치아의 날 행사와 특강, 임상실습, 연수교육, 포스터 전시회, 해외연계발표, 라운드 테이블, 토론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로울라치대의 Robert Alan Lowe 교수 등이 “심미치과의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특강을 가지며, 정훈치과 원장의 “개원의를 위한 Temporomandibular disorders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임상실습 연수교육과 이대목동병원 김명래 교수의 “임플란트 치료후 합병증과 불량한 경과에 대한 최신 치료 경향” 등 총15편의 연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학술대회 양일간 치과기자재 전시회도 병행한다.

대한구강해부학회

정총 성료 - 非치의도 회원가입

대한구강해부학회(회장 고재승)는 지난달 26일 서울치대에서 제1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대한구강해부학회는 앞으로 「치과의사가 아니더라도 구강해부학 교육 및 연구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심이 있을 경우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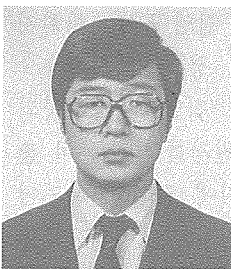
이날 통과된 회칙개정안에 따르면 용어심의, 교재 편찬, 학술지 발간, 기금모금 등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으며 특히 용어심의 사업은 별도로 위원회를 두어 체계적으로 구강해부학 용어를 정리 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임원구성도 조정하여 부회장을 2명으로 늘였으며, 재무·섭외이사를 신설 총 5명의 실무이사를 두기로 했다.

또한 연회비를 종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총회개최는 매년 가을 학술대회 때 동시에 개최키로 하고 5백 70여만원의 예산안을 승인했다.

科技聯

-우수논문상 韓秀夫 교수 수상



한 수 부 교수

지난 4월 28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제5회 과학기술 우수논문 시상식에서 한수부 교수(서울치대 치주과)가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수부 교수가 미국치

주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테트라사이클린제과 사이클린 및 구경산혼합젤이 비외과적 치주치료에 미치는 영향(한수부·정성남)』이 우수논문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논문상은 작년도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과학기술분야의 전학회에서 1편씩 추천된 논문 중 종합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상이다.

광고문의

도서출판 현대의학사

277-8867, 266-8398

고대구로병원

덴탈유니트체어 추가도입-환자진료 박차

고려의대 구로병원 치과(과장 신상완)는 최근 치과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Kavo(독일 Kavo社) 유니트체어에 추가로 가장 고급 기종인 첨단 치과용 장비(독일 지멘스社) 7대를 도입하여 진료실 확장과 함께 3일부터 진료에 들어갔다.

이러한 시설은 국내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중 질적인 면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된다.

1대당 약 5천만원 이상 호가하는 덴탈 유니트체어에, 소독에 따른 감염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치과용 드릴 40세트를 추가로 구입하였으며, 최첨단 치과용 장비로 앞으로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보다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구로병원 치과는 첨단장비인 덴탈유니트 체어 도입과 치료실 확장으로 보철과, 구강외과, 교정과 스텝진과 전공의 8명이 동시에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앞으로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공치아 이식 클리닉, 구강악안면 중앙 클리닉, 약교정 클리닉 등 특수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의국원은 또 첨단 치과용장비를 이용해 구로병원이 자랑하는 「임플란트 클리닉」이 '국내에서 최초 클리닉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매달 각종 치과 전문분야 연수강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계획을 설명하였다.

(주)우리동명 -신제품 발표회

(주)우리동명(대표이사 이명범)은 '95년 신제품 발표회 및 사은대잔치를 5월 13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룸에서 치과의료계와 치과기공계 관

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새롭게 발표된 제품은 2종의 포세린 용금합금(글로리, 미래내)을 비롯하여 3종의 세미조합금(세미, 세미-년실비, 세미-골드), 1종의 주조용 금합금(이사랑)으로 이들 제품들은 금년 4월 미국FDA(식품의약국)에 등록을 필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명범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구강보건향상의 일익을 담당하는 데 작으나마 보탬이 되고자 《치과용 합금개발 연구기금을 조성》 먼훗날에 오늘날의 우리동명의 모습에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열과 성을 다하여 최고의 제품을 생산, 국민 모두가 양질의 치과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술 강좌로 연세대 김경남 교수의 「치과주조용합금의 물리적 성질과 인체 위해성」에 대한 강좌와 동대학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백홍구 교수의 「진공주조의 특성」이란 강연이 있었다.

발간안내

대한구강내과학회

제19권 2호 학회지 발간

대한구강내과학회(회장 김영구)는 「학회지 제19권 2호」를 발간하였다. 정진우·현기용·이승우(서울치대)의 「구강내 작열감 증후군의 임상적 특징에 관한 연구」 원저를 비롯하여 총 17편의 논문이 240여 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어 있는 금번 책자는 내부의 편집모양 및 새로운 활자를 사용 새로운 느낌의 학회지로 발간되었다.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
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지 제24권 2호 발간**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회장 이상래)는 「학회지 제24권 2호」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학회지는 나경수(부산치대)의 「측두하악장애 환자의 파노라마 방사선상에 관한 연구」 논문을 필두로 총 24편의 논문과 회무 보고가 290여 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대한치과기재학회
대한치과기재학회지 제21권 2호 발행**

대한치과기재학회(회장 이한무)는 「학회지 제21권 2호」를 발간하였다. 이진숙·김경남(연세대)의 「치과교정용 브라켓 접착제로서 불소함유 레진과 글라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의 물성 평가」 등 총 8편의 연구·학위 논문이 90여 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었다.

**대한치과의사 컴퓨터 동호인회
-(가칭)대한치과정보통신학회-학회지발간**

(가칭)대한치과정보통신학회(회장 박래원)는 학회지 통권 9호를 발간했다.

학회 가입에 즈음하여 발행한 이번 회지에는 『영상강조기법을 이용한 치근단 병소의 치과 방사선 진단(이영식), 컴퓨터와 한글(서학원), 컴퓨터 조립과 오류 수정에 관한 고찰(이문준), 한글 윈도우 3.1(이창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구현과 치과의원에서의 활용사례(최영석)』 등의 학술기사 5편과 김규문 선생의 「생각의 전환」이라는 수필, 치과방 글모음, 학회소식과 보수교육 예정 스케줄, 새롭게 단장한 덴탈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이 실려있다. 또한 학회 연혁, 회칙정관, 장비보유 현황, 회원명단이 실려있다.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지 제25권 1호 발행**

대한치과교정학회지(회장 장영일)는 「학회지 제25권 1호」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교정학회지는 기존의 4×6배판 규격에서 국배판으로 판형을 바꾸었으며, 본문 체제 및 서체를 새롭게 하였고, 지질을 고급용지로 바꾸는 등 기존의 학회지와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발간되었다. 또한 연 4회 발행하던 학회지를 연 6회로 발간하기로 했다.

동학회지에는 양원식·김병호(서울치대)의 「이모장치의 적응증에 관한 후향적 고찰」을 필두로 총 10편의 논문이 130여 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었다.

**한국퀀테센스출판(주)
“교합의 원리와 임상” 번역출판**

개업의에게는 임상치료시 원전으로, 학부나 대학원생들에게는 기술적 과정 수행의 포괄적 교육지침서가 될 책으로 오세광 선생의 “교합의 원리와 임상”을 소개한다.

이 책은 Donald C Curnutte가 치과학에 기여할수 있도록 살아있는 유산으로 남긴 “Occlusal Correction Principle And Practice”를 번역한 것으로, 이론이나 기본원칙들을 요약 소개하고, 포괄적인 적용범위까지를 다루고 있으며, 구강학계의 기본적인 해부학·생리학·생물역학의 예비지식 소개를 시작으로 근거가 확실한 진단을 하고, 교합을 분석하고 교합의 부조화들과 기능 이상의 습관 양상들에 기인한 구강악계의 기능장애들을 치료하는 것을 포함한 개념들로 이루어졌다. 이 책은 한국퀀테센스출판(주)가 교합치료 영역에서 새로운 임상과정숙으로의 건설적인 출발로써 역할하기를 기대하며 출간하였다.

구입처 : 한국퀀테센스출판(주)
정가 : 80,000원 전 화 : 595-3311~3